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혁신의 중심에서

김성암

한국전력기술(주) 사장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원자력산업」 독자 여러분과 가정
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전지구적 의제와 분산화, 디지털화 등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원자력산업은 커다란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로드맵에서 다양한 녹색 에너지원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이 깨끗하고 효율적인 미래 에너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에너지시장 패러다임 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신 기술과 신규사업 개발에 더욱 매진하는 2022년이 되고자 합니다.

국내 가동중인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기술적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SMR, 원전사후관리, 디지털 융복합 등에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하여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자력산업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비전을 높이 세우고 미래지향적 경영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역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직·인사·문화 혁신을 통한 ESG 경영으로 한국전력기술의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호랑이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황소의 걸음처럼 신중하고 끈기있게 나아간다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마음가짐으로 한국전력기술이 새해에도 원자력산업계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NIF